

KIA 우승 1승 남았다



LG와 시즌 마지막 대결 대타 최경환 끝내기 打 5대4 승

1승 남았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최종전에서 9회말 1사 만루에서 터진 최경환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5-4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2위 SK가 나란히 승리를 챙기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KIA는 귀중한 1승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2회 양팀의 점수를 주고 받았다. 2회초 LG 이진영의 타구가 투수 키를 넘어 안타가 됐고, 서재응은 박종호와 박경수에게 연속안타를 허용하며 순식간에 2점을 내줬다. 이후 LG는 희생번트와 희생 플라이로 2루 주자를 불러들이며 0-3을 만들었다.

2회말 KIA가 곧바로 추격에 들어갔다. 최희섭의 홈런이 공격의 시발점이 됐다. 2회말 선두타자로 들어온 최희섭은 김광수의 직구

를 받아 중월 솔로 홈런을 만들어 1점을 추격했다. 김상현의 볼넷으로 공격을 이어간 KIA는 3개의 안타와 볼넷으로 3점을 더하며 4-3으로 역전극을 펼쳤다.

5회 이대형의 빠른 발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어제 5개의 도루를 추가한 이대형이 좌전안타로 나간 뒤 1회에 이어 또 다시 도루를 성공하며 KIA 마운드를 흔들었다. 좌익수 안타로 3루를 밟은 이대형은 안치용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파고들며 4-4를 만들었다.

경기 중반부터는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됐다. 6회부터 구름을 마운드에 올린 KIA는 '언더 콤비' 손영민과 유동훈까지 투입하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4-4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던 9회 최희섭이 다시 한 번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최희섭이 볼넷을 골라 나간 뒤 김상현의 중전안타가 나오면서 무사 1-2루. 김상현의 보내기 번트와 나지완의 고의사구로 1사 만루.

대타로 들어선 최경환이 끝내기 안타로 3루 주자 최희섭을 불러들이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승리로 KIA의 올 시즌 LG 전 전적은 16승1무2패가 됐다.

KIA는 주말 3연전에서 화려한 홈런쇼를 선보이며 팬들의 환호에 보답했다. 김상현은 18일 3회말 1사2루에서 한희를 상대로 중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시즌 35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이날 홈런으로 김상현은 홈런 수가 가지고 있던 팀 국내선수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거포 형제' 최희섭과 나지완도 홈런 두 개씩을 터트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19·20일 이틀 연속 홈런을 신고한 최희섭은 31호 홈런을 쏘았고, 18·19일 두 개의 공을 장외로 날려버린 나지완은 시즌 23호를 기록했다.

한편 19·20일에는 무등경기장에 1만3천 400관중이 들어서면서 올 시즌 20번째 만원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LG전. 4-4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9회말 KIA 공격 1사 만루에서 대타 최경환이 끝내기 안타를 터뜨린 후 동료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고 있다. /위직량기자 jrvi@kwangju.co.kr

SK 22일 삼성전 패할 땐 KIA 우승 삼배인

1위를 놓고 KIA와 SK의 마지막 기싸움이 펼쳐진다.

2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KIA의 정규리그 우승을 지켜보기 위한 야구팬들로 시즌 20번째 만원 사례를 기록했다. 전날 LG를 9-6으로 제압하며 매직넘버를 2까지 줄인 만큼 KIA가 이날 승리를 하고, 2위 SK가 패한다면 KIA가 정규리그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KIA가 5-4로 승을 하나 추가했지만 SK가 20일 11-3으로 한화를 누르고 15연승을 달릴면서 매직넘버가 1에서 멈췄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계산한 KIA의 정규

리그 우승 D-day가 무산되면서 야구팬들의 관심은 1위 경쟁이 언제 마무리 되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23일까지는 SK가 1위 자리의 키를 쥐고 있다.

KIA는 24일 까지 경기가 없지만 SK는 22일과 23일 삼성과의 홈경기를 갖는다. 매직넘버는 1. 남은 경기에서 SK가 패를 하나라도 기록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KIA의 우승이 확정되는 만큼 22일 SK의 경기결과에 따라 KIA가 챔피언의 자리에 무릎질할 수도 있다.

23일까지 SK가 패없이 17연승으로 프로야구 최다 연속 기록을 기록한다면 24

일 KIA가 스스로 1위 싸움을 마무리 해야 한다. 하지만 24일 KIA가 패배한다면 최후의 남은 프로야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25일이 된다. 이날 KIA는 히어로즈, SK는 두산과 만난다.

KIA가 이길 경우에는 SK의 경기와 상관없이 우승 삼배인을 터뜨려도 된다. 그러나 KIA가 최종전에서 히어로즈에 무릎을 꿇는다면 SK의 경기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 SK가 승리한다면 KIA는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주저 앉게 되고, SK가 패한다면 비로소 우승 촉매를 들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나연이나 신지애나

삼성월드챔피언십
최종라운드 맞대결



최나연(22·SK텔레콤·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 셋째날 자신의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최나연은 20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남코스(파72·6천72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10개를 쓸어들여 9언더파 63타를 쳤다.

최나연이 친 63타는 2000년 박지은(30·나이지켄)이 세운 대회 최솟아 62타에 1타 모자랐지만 자신의 최솟아 기록인 65타를 갈아치우는 절정의 샷을 보여줬다. 사흘동안 15언더파 201타를 적어낸 최나연은 단독 선두였던 신지애(21·미래에셋)를 2타차로 따돌리고 선두자리에 올라섰다.

중간합계 15언더파 201타는 2002년과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세웠던 대회 54홀 최솟아 기록과 타이.

신지애도 버디 6개를 잡았지만 보기 2개에 발목이 잡혀 4타를 줄이는데 그쳤다. 중간합계 13언더파 203타를 친 신지애 뒤에는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12언더파 204타로 추격했다. 작년 청아니(대만)와 신인왕 경쟁에서 밀렸고 LPGA 투어 2년째에 접어들었

지만 아직 우승이 없는 최나연은 특급대회에서 지금까지 아쉬움을 모두 털어낸 기회를 잡았다.

최나연은 2번홀(파4)에서 4m짜리 버디 퍼트를 시작으로 3개를 연속 버디를 낚는 등 전반에만 무려 6타를 줄이는 불꽃타를 휘둘렀다. 후반에도 버디 4개를 보낸 최나연은 15번홀(파4)에서 홀까지 15야드를 남기고 세차레나 퍼터를 사용하는 바람에 보기를 적어낸 것이 유일한 실수였다. 최나연은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모두 완벽했다. 내일도 나 자신을 믿고 편안하게 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나연과 대결할 신지애는 정교한 아이언 샷으로 타수를 줄여 나갔다. 아이언샷은 홀에서 4m를 벗어나지 않았고 16번홀(파3)에서는 티샷이 그린에 올라오지 못했지만 20야드를 남기고 침입버디를 잡기도 했다.

신지애는 "그린 스피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어려웠지만 아이언샷이 잘 맞았다"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오늘 놀라운 스코어를 적어낸 나연 언니랑 경기하는데 우승 경험이 유ри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대섭 솔로몬 오픈서 시즌 첫 우승

'삼금왕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대섭(28·삼화저축은행)이 한국프로골프(KPGA) SBS 메리트 솔로몬 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하며 삼금왕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김대섭은 20일 경기도 여주 솔로몬 골프

장(파71.6천757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장타자 김대섭(21·하이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합계 6언더파 278타로 짜릿한 1타차 승리를 거두며 통산 승수를 5승으로 늘렸다. 김대섭은 생애 첫 우승을 눈앞에 뒀다가 18번홀(파3)에서 빼어폰 보기를

적어내는 바람에 5언더파 279타로 준우승에 그쳤다. 올 시즌 우승없이 삼금 랭킹 3위에 올라 있던 김대섭은 1억원을 보태 1위 배상금(23·키움증권)과 격차를 2억원으로 좁히며 2위(3억5000만원)로 뛰어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첫 탈락하며 삼금이 5억 6000만원에서 멈춘 배상금이 아시아투어에 출전하느냐 KPGA 투어 몇개 대회를 건너 뛴 예정이어서 김대섭의 삼금왕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연합뉴스

임대현·정광석 정구복식 전국 최강

〈광주 동구청 소속〉

한국실업연맹전 우승

정광석·임대현(광주 동구청) 조가 전국 최강의 정구 복식팀으로 떠올랐다.

정광석·임대현 조는 19일 경북안동국제동경기장에서 열린 2009년도 한국실업정구연맹전 일반부 개인복식 결승에서 김영선·양진환(서울시체육회) 조를 4-1로 꺾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 정·임 조는 상대가 초반 잦

은 실책으로 흔들리자 정광석이 이를 놓치지 않고 예리한 코너워드로 밀어붙이고 임대현이 스매시로 기선을 제압하면서 순습계 경기를 이끌어 갔다.

정·임 조의 환상콤비가 빛을 발하면서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서 나가다 3세트를 내줘 2-1로 추격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다시 안정을 찾은 정·임 조가 4·5세트를 로빙공격과 강서브를 앞세워 상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임대현(왼쪽)·정광석 선수.

이로써 정광석은 3년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으며, 임대현은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휴튼 CC 그랜드 오픈

나주시 디도면 송학리에 위치한 휴튼 컨트리 클럽(대표 마형렬)이 19일 오전 박광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지사·최인기 국회의원·김주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초청인사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마형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내장객 한분 한분을 고귀하게 모시는 명문 골프장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p>신인포인트</p> <p>신인포인트는 신규회원가입 시 10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회원가입 후 1주일간 유효)</p>	<p>신인포인트</p> <p>신인포인트는 신규회원가입 시 10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회원가입 후 1주일간 유효)</p>	<p>신인포인트</p> <p>신인포인트는 신규회원가입 시 10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회원가입 후 1주일간 유효)</p>	<p>신인포인트</p> <p>신인포인트는 신규회원가입 시 10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회원가입 후 1주일간 유효)</p>	<p>신인포인트</p> <p>신인포인트는 신규회원가입 시 10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회원가입 후 1주일간 유효)</p>
---	---	---	---	---